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패 취약분야 자체 개선시책 최종 평가 실시

부안군은 지난 29일 2024년 부패 취약분야 자체 개선시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 취약분야를 내부 조직문화 개선으로 특장해 올 5월부터 부서별 자체 개선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각 부서별 자체 개선시책 시행결과에 대해 권익현 부안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청백리추진단의 고위직 1차 평가에서 상위 우수부서 제안시책 6건을 선정할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선정된 상위 우수부서 제안시책에 대해 파급성, 지속성 등 세부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발표를 듣고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갑질NO! 소풍YES!, 편하게 입고 편하게 말하는 데이, 티키타카 '문화의 날' 운영 등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해 교통복지 실현에 나서고 있다.

복지택시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시장이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복지택시는 2015년 차량 7대와 30개 마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올해는 차량 31대가 30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차량 1대를 추가해 318개 마을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복지택시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100원, 면소재지까지는 1000원으로, 요금 차액은 시에서 보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촌지역 교통약자 편의 증진 복지택시 확대

정읍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해 교통복지 실현에 나서고 있다.

복지택시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시장이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복지택시는 2015년 차량 7대와 30개 마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올해는 차량 31대가 30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차량 1대를 추가해 318개 마을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복지택시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100원, 면소재지까지는 1000원으로, 요금 차액은 시에서 보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천강 하구 습지 훼손지 복원

고창군, 갯벌·인천강·운곡습지 생태계 연결... 국내 유일 습지생태축 위상

고창군 인천강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 훼손지가 복원됐다.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 습지생태축으로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연기마을 앞에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2018년 10월 습지보호지역(72만2000㎡)으로 지정된 인천강 하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과 수달을 포함한 삼, 담비, 흰목물떼새 등 932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한다.



이러한 생태환경과 동식물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88억5000만원(국비 62억8000만원, 지방비 20억 7000만원 등)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 등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등을 식재하는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고창군은 이미 운곡습지를 생태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인천강 하구습지와 운곡습지를 하나의 통합된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고창군이 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다"며 "운곡습지와 인천강 하구습지를 연결해 더욱 통합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2024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 참여

기후 위기를 기후 회로' 부안군 탄소중립 추진전략 소개 큰 호응

부안군은 지난 29일 광명시에서 주최한 탄소중립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부안군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24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은 광명시 국내외의 결연도시와 함께 탄소

중립 목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국제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 일직동 아이벡스(IVEX)스튜디오에서 열렸으며, 참여 도시로는 독일 오스나부르크, 미국 오스틴, 중국 라오칭, 일본 아비토

시와 충북 제천시, 서울 은평구 등이 함께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11개의 결연도시는 이날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대한 선언서'에 공동 서명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권익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화두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기후 위기는 이미 환경의 문제를 넘어 산업과 경제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부안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부군수,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동분서주

김철태 고창부군수가 30일 국회를 방문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건의 국회 단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철태 부군수는 이날 지역구 유준병 의원을 비롯한 박정 예결위원장, 허영, 조배숙 의원실(이하 예결위)과 임오경(문체위), 안태준(국토위) 의원실을 방문해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200억원),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 △수산지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50

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200억원)은 대규모 민간투자가 진행되는 고창군 심원면 염전부지 일원에 국내 최초 카누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은 2028년 완공예정인 서해안선 체류관광 랜드마크인 고창종합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레저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를 견인할 고창군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속도가 신속되며,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고창군 건립 당위성이 큰 사업이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은 최고의 선셋 체류형 관광스팟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유)귀리귀인이 만든 증류식 소주 '1894 혁명'이 최근 열린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 귀리로 빛은 소주, 도지사상

귀리귀인이 만든 '1894 혁명'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서 수상

정읍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유)귀리귀인이 만든 증류식 소주 '1894 혁명'이 최근 열린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894 혁명'은 정읍 특산물인 귀리를 원료로 특허받은 제조기술과 오코 숙성 과정을 통해 고급스러운 풍미를 자랑하는 증류식 소주로, 출시 후 지역 대표 명주로 자리 잡고 있다.

귀리귀인은 동화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부면에 위치해 있으며, 정읍의 역사를 담은 전통주 브랜드로 '1894 혁명'을 비롯해 '1894 동학'과 '1894 고부' 등 다양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정읍을 알리고 있다.

이재운 귀리귀인 대표는 "시의 지원 덕분에 제품 개발과 브랜드 구축에 성

공할 수 있었다"며 "정읍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귀리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발효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번 엑스포에 귀리귀인을 포함해 발효차, 식초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5개 지역 업체를 지원해 행사 참가를 독려했다.

김원식 농촌지원과장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국내외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2B 거래를 통해 해외 진출 기회도 열어주는 중요한 장"이라며 "정읍의 우수한 발효식품들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가족센터는 현재 '온가족 보듬사업'을 통해 위기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자녀상담, 임신·출산 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와 긴급위기 지원, 문화체험 등도 마련하여 정서적·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천병선 가족센터장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가정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가족센터, 가정상담센터와 온가족 보듬사업 운영

정읍시 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정읍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와 손을 잡고 '온가족 보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읍에 거주하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한 가족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상담서비스와 사례관리, 법률 및 통역지원, 가족체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위기에 처한 취약가정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가족센터는 현재 '온가족 보듬사업'을 통해 위기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자녀상담, 임신·출산 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와 긴급위기 지원, 문화체험 등도 마련하여 정서적·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천병선 가족센터장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가정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